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본투자 경험에 관한 연구

Married Female Immigrants' Experience of Investing in Human Capital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 수 홍 성 희*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Hong, Sung-Hee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married female immigrants' experience and process of investing in human capital in Korea. The participants were 11 wom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o had experience of investing in human capital in Korea, could communicate in the Korean language, and were living in Daegu.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intensive interview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participants' level of education and work experience in native country were not accepted as human capital and offered no advantages or obtaining employment in Korea, while English language skills were useful for those pursuing an English lecturer position. The motives for investing in human capital were 'adjusting to early stage of marriage and a new environments',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to improve female immigrants' level of education', 'seeking a better job', and 'advocating more education'. The types of investing in human capital were 'learning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pplying to Open University or taking a middle or high school qualification examination', 'obtaining certification', and 'entering regular university'. The participants' plans for investing in the future were 'finding their own job', 'entering regular university', and 'participating in useful educational programs including Korean

* 주저자, 교신저자 : 홍성희(hsh@kmu.ac.kr)

language skills for daily lif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motives for investing in human capital were related in the stage of their marriage. The phases and changes in their motives during a marriage proved that the participants continued to invest in human capital according to their needs and situation.

Key Words : 결혼이주여성 (married female immigrant), 인적자본투자(investing in human capital), 인적자본투자동기(motives for investing in human capital), 인적자본투자유형(types of investing in human capital)

I. 서론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정부는 이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시행하였다. 결혼이주의 초기 단계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한국어 습득과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지원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의 경제상태를 고려한 취업지원정책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부처별로 외국인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지원 및 경제활동을 통한 인적자본 활용 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아젠다가 논의되고 있는(고용노동부, 2011) 점이 눈에 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 대상 정책이 취업지원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다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본국보다 더 나은 생활환경과 경제적 풍요를 기대하고 국제결혼을 선택하며, 이들의 경제적 상태가 결혼생활과 한국사회 정착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 가구의 상당 비율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며(양인숙 외, 2010), 이들에게 언어 차이를 제외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한 연구결과(장명선 외, 2009)에서 지적되었듯이 이들의 경제적 상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은 역량 개발과 경제적 자립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제로 기대되기 때문이다(양인숙 외, 2010). 그런데 이주여성들의 자립과 취업을 위해서는 학력, 직업경험, 국적과 모국어 등의 인적자본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내재되어 있는 특성은 효용과 이익을 창출하며 또한 투자와 관리를 통해 축적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으로 보는 것이 인적자본론이다(홍성희 외, 2008). 인적자본이란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수행능력에 포함된 경쟁력, 지식, 성격적 특성들의 총체로서(Sullivan, et al., 2003), 학교교육 이외에 직무교육, 건강관리, 정보 수집 등을 통해 획득된다.

지금까지 인적자본론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해왔다(Ho, 2006). 선행연구(Mincer, 1993; Antecol et al., 2002; Hall, & Farkas, 2008)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의 교육수준, 기술, 이주국의 언어능력 등 인적자본이 취업가능성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취업을 목표로 이주한 이주노동자 및 이민자들과 달리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을 위해 이주한 것이므로 취업을 위해 결혼 전에 이주국의 언어나 기술 등을 미리 준비

하고 습득할 가능성이 낮다. 또 20세 전후의 어린 나이에 결혼한 여성들의 학력이 낮거나 취업경험이 없어 인적자본이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편 이주여성들이 모국에서 습득한 학력과 취업경험, 모국어 등의 인적자본은 언어와 문화, 산업과 직종의 차이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그 가치와 유용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이 본국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수준과 취업경험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입국 후 취업에 바로 투입되기 어려우며, 한국에서 취업을 위해서는 일자리에 적합한 언어와 직무능력을 새롭게 습득해야 한다. 또 취업에 성공한 이주여성들도 직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취업시장에서 요구하는 학력과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욕구에 직면하게 된다. 즉, 진학과 자격증에 도전하는 인적자본투자로 이어진다.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본은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원이 될 수 있다. Blood 와 Wolfe(1960)의 자원이론에 의하면 여성이 부부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적 자원의 양과 질에 따라 가정 내 지위와 권력이 증가한다. 자원에는 교육수준, 직업, 소득, 성적 매력, 가정 내 역할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직업과 소득은 특히 중요한 자원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 많을수록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이러한 자원에 국적과 언어 등이 더해져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이 있으며, 가난한 나라 출신이 아닐 경우 가정 내 지위가 높아진다(김현숙, 2006). 따라서 이주여성의 인적자본은 경제활동뿐 아니라 결혼생활과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다. 결혼생활의 핵심인 부부관계와 부부갈등에 초점을 둔 연구들(김오남, 2006; 김희주 외, 2007; 김현숙, 2010), 다문화가족의 근본적인 갈등원이 되는 문화차이에 대한 이주여성들의 적응스트레스와 문화적응유형에 대한 연구들(양옥경 외, 2009; 김현숙 외, 2010; 이아진 외, 2011)에서 이주여성의 출신국,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이나 자아탄력성과 같은 개인적 자원이 부부갈등 또는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특정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양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인적자본의 활용과 개발의 맥락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과 창업에 대한 연구들은 경제활동 현황과 인적자본실태, 취·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요인들을 다루고 있다(장서영 외, 2009; 양인숙 외, 2010; 손기영, 2010; 양인숙 외, 2011; 김경아, 2012). 이들 또한 기초적인 인적자본실태를 파악하거나 인적자본요인의 영향의 유무와 영향력을 입증하는 횡단연구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 초부터 현재까지의 생활적응과정에서 인적자본의 활용 경험과 인적자본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의 관심은 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적자본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으며, 나아가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거나 축적하려는 인적자본투자로 이어지는 과정은 어떠한지를 밝히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주여성들이 실행해온 인적자본투자의 유형과 그 동인이 되었던 결혼 전 인적자본의 수준, 그리고 결혼 후 인적자본투자를 하게 된 동기, 미래의 인적자본투자 계획을 파악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연구는 이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인적자본을 증진시키며 결혼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부 간 자원배분과 권력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또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문제와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역할 모델 등의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이주여성들이 인적자본투자 경험을 통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경제주체로 사회

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주여성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이주여성들의 인적자본투자의 과정과 특성을 밝힘으로써 이주여성의 인적자본 특성에 따른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본투자와 국제이주

인적자본론은 인간의 능력과 특성을 효용과 이익을 창출하며 투자와 관리를 통해 축적 가능한 자본으로 간주한 Schultz(1961)에서 유래한다. 이 이론에서는 노동자의 생산성의 차이는 인적자본의 투자 정도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며,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많을수록 노동력의 질이 높아져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임금수준도 향상되므로 인적자본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인적자본을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개인의 노동시장에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수요나 학교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Bryant(1990)는 인적자본이 가계경제구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가계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적자본은 여러 가지 투자형태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데 첫째, 가장 일반적인 인적자본투자는 공적 학교교육이다. 개인은 학교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 지식과 기술을 통해 노동능력이 향상된다. 둘째, 노동시장 또는 가정에서의 직업훈련과 경험을 통해 인적자본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훈련과 경험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노력들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이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는 결과적으로 질병을 감소시키고, 기대수명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더 좋은 직장을 찾거나 다른 생활양식을 위해 이주하는 것도 인적자본투자이다. 새로운 삶을 위해 고향을 떠나 북미대륙에 정착한 이민자들이나 20세기에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여러 나라의 사례들은 이주를 통한 인적자본투자의 예이다. 다섯째, 결혼 또는 이혼, 그리고 출산은 보다 미묘한 형태의 인적자본투자이다. 결혼생활의 경험을 통해 축적될 수 있는 인간관계, 육아, 관리, 쇼핑 등의 일반적인 인적자본은 노동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의 시장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결혼생활을 오래할수록 배우자의 성격이나 역량을 파악하게 되고 자녀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며 또는 의사결정능력과 같은 독특한 지식과 기술이 생기는데, 이 또한 특수한 인적자본의 예이다.

이러한 인적자본론의 관점에서 볼 때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을 통해 자신의 인적자본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를 시도한 것이며, 특히 결혼과 동시에 국제이주를 감행한 것이므로 이주를 통한 인적자본투자로 볼 수 있다.

인적자본론은 국제이주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으로, 인적자본론에서는 국제이주의 원인과 동기를 인적자본투자 현상에서 찾고 있다. 즉, 이 이론에서는 개인이 교육, 경험, 훈련, 언어 등의 인적자본을 투자하여 고용이 가능하고 비용 대비 가장 큰 순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한다고 가정함으로써 국제이주를 인적자본투자 현상으로 보았다(석현호, 2000). 인적자본론은 이주의 원인 뿐 아니라 이주 후 적응 내지 정착을 설명하는데도 적용되었다. 인적자본론을 이주노동자의 적응에 적용한 Chiswick(1994)은 이주자의 적응이 이주 전에 축적한 인적자본이 아니라 이주 후 획득한 인적자본에 의해 결정된다는 '동화효과'를 주장하였다.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은

초기에는 모국에서 획득한 인적자본을 이주국에서 유용한 기술로 전환하는 정도가 낮아서 소득이 낮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점차 소득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즉, 이주국의 언어를 배우고 기술을 익히는 인적자본투자가 취업과 소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인적자본론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주로 양적 방법을 이용해 이주자의 모국에서의 교육수준과 취업경험, 이주국의 언어구사능력 등의 인적자본이 고용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해 왔다. 그중에서도 교육수준은 많은 연구에서 고용가능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적자본으로 보고되었다. Mancinell et al.(2010)은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을 위해 개인적인 평판, 이민자 네트워크, 높은 교육수준 등을 모두 활용하고 있지만 그 중 높은 교육수준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교육수준과 함께 중요한 영향요인은 이주국가의 언어능력으로 밝혀졌다. 이주국의 언어를 잘 구사하는 것은 이주국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주국의 언어능력에 따라 고용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국 언어의 능숙함은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유도할 수 있어(Nah, 1993), 이주자들이 지역사회의 교육기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적자본은 고용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이주자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Hall 과 Farkas(2008)는 이주자의 교육수준과 연령, 언어능력, 인종과 민족 등의 인적자본이 라틴계 이주노동자집단과 백인 이주노동자집단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두 집단 모두 교육이수기간에 따라, 그리고 언어능력이 높을수록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노동 경험이 축적될수록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 Takenoshita (2005) 역시 브라질로 이주한 일본인들의 교육수준과 체류기간, 언어능력이 소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주 전 교육수준 뿐만 아니라 이주 후 교육, 즉 이주 후 인적자본투자가 높은 소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양인숙 외, 2010에서 재인용).

Ho(2006)는 호주 정부가 숙련직 위주의 이민정책을 시행한 이후 이민자의 대다수가 숙련전문직에 종사하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고용율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호주로 이주한 중국여성의 사례와 호주 이민자 서베이 자료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이민 경험과 취업 성과가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즉, 여성이민자는 새로운 환경에서 일과 돌봄노동을 재협상해야 하는 도전에 부딪히며, 보다 전통적인 역할인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은 취업할 경우에도 직업의 하향이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주저의 성별에 따라 인적자본이 이주국에서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적자본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참고로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본의 개념을 정의하면,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일에 활용되었던 개인적 특성과 지식, 능력의 집합체로서, 공적· 사적 교육과 개인적 경험, 직업활동 등을 통해 개발되고 축적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 적용해보면 모국에서의 인적자본 이외에 결혼이주 후 습득한 인적자본, 즉 이주국의 언어능력, 교육이수여부와 이수기간, 체류기간 등이 이주 후 적응과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인적자본투자 경험은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국에서 획득한 인적자본이 빈약한 경우 이주여성이 이주국에 잘 적응하기 위해, 그리고 취업가능성 향상을 위해 인적자본투자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선행연구의 고찰

지금까지 인적자본투자 연구는 주로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펴온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인적자본이 고용가능성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다. 국내에서는 결혼이주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구직경험(장서영 외, 2009)이나 경제활동실태(양인숙 외, 2010)에 대한 연구의 일부로 인적자본투자 실태를 다루거나 인적자본이 취업 또는 창업에 미치는 영향(양인숙과 김선혜, 2011; 김경아, 2012)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다. 외국의 인적자본투자 연구는 주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인적자본 이외에 사회자본과의 비교, 남성과의 비교 연구들이 부분적으로 시도되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노동자와 달리 이주국에 정착해 가족을 이루기 때문에 가족을 포함한 사회자본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영향 또한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Chuang 등(2010)의 연구에서는 대만에 이주해 온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인적자본특성보다는 가족의 특성에 따라 고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Ho(2006)는 호주로 이주한 중국여성의 사례와 서베이자료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인적자본이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에 따라 결혼이주의 역사와 결혼이주여성정책의 차이로 인해 연구의 초점이 다르므로, 국내의 결혼이주여성 관련 연구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의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손기영(2010)은 경기도 지역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인적자본실태를 한국어수준, 컴퓨터 운용능력, 자격증 보유여부, 교육수준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중 객관적 측정지표인 정규교육연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7-12년이 67.4%로 가장 많았고, 평균 교육연수는 12.4년으로 우리나라의 고졸 정도의 수준이었다. 또한 한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이 17.1%이며, 가장 많은 것은 운전면허자격증이었다. 운전면허자격증 취득자 중 한국어 실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조선족 여성이 가장 많은 20.0%를 차지했다. 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은 45.2%로, 한국보다는 본국의 자격증을 소지한 여성들이 더 많았다. 또한 전반적으로 이주여성의 출신국 별 인적자본 특성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서영(2009)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구직경험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이주여성들은 취업을 위해 한국어교육 및 직업훈련교육 등 인적자본투자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우선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자격증을 딸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어교실에 참여했다. 또한 기초직업능력교육으로 컴퓨터교육, 운전면허교육 등에 참여하였고, 기초직업능력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한 후에는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다문화강사과정, 통역사교육 등 전형적으로 이주여성들의 취업 직종과 관련된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처럼 이주여성들은 한국어를 시작으로 점차 자신의 상황과 진출 분야에 필요한 교육에 참여하는 인적자본투자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개인적 요인으로는 이중 언어, 이주 '경험', 학력, 셀프리더십이 제시되었다. 영어나 중국어와 같은 출신국 언어자원이 중요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언어자원은 한국어인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모국어와 한국어의 이중언어능력이 취업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또한 다문화강사, 아동양육지도사, 결혼정착상담원 등의 직종은 이주여성의 이주 및 다문화 경험이 취업자원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학력 또한 중요한 취업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40명의 연구참가자 중 27명이 전문대졸 이상이며, 이 중 18명이 통번역, 언어강사, 상담 등 전

문직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이주 후 인적자본투자 및 역량 확대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았다. 연구참가자 모두 한국어교육, 언어강사, 다문화강사,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교육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미(2009)의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은 모국에서의 학력이나 경력보다는 한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언어자원이나 경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들의 취업 관련 자원은 모국어가 한국에서의 취업에 얼마나 효용이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본국에서 했던 일 경험이 한국에서의 구직 욕구와 구직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일을 장기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직업을 갖기 위한 도전에 대해 경험을 쌓아온 것이므로, 새로운 환경에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직업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장· 단기 계획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결과는 특정 인적자본만 한국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양인숙 등(2010)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특성과 취업의 관련성을 교차분석한 결과 한국에서의 취업 직종과 본국에서의 취업 직종과의 관련성은 모든 직종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현재 직종의 종사자가 과거 본국에서 해당 직종에 취업했던 경험을 가진 비중이 높았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인적자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취업률이 높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입국 후 일한 적이 없는 미취업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학력과 취업의 높은 관련성을 보여준다. 반면 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의 직업훈련 참여 경험, 즉 이주 후 인적자본투자에 따른 현재 취업상태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전 인적자본과 취업가능성과의 관련성이 높은 반면 이주 후 인적자본투자는 취업가능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인숙과 김선혜(2011)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09)의 원자료를 활용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변수가 고용가능성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결혼이민자의 고용가능성에는 인적자본 변수인 연령, 학력, 한국어능력, 취업경험, 직업훈련경험이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에는 연령, 학력, 한국어 능력, 본국에서의 취업경험은 정적인 영향을, 한국에서의 직업훈련 참여경험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주여성들의 인적자본투자인 한국에서의 직업훈련경험이 고용가능성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소득에는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자 대상의 직업훈련프로그램들이 단기로 진행되고 고숙련 직종을 목표로 하고 있지 못하며,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안정적 일자리로 연계되지 못하는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김경아(2012)는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만이 한국문화를 활용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었으며, 일반인 대상의 선행연구에서 창업의사 설명변수로 알려졌던 모국의 창업경력, 전문가 경력, 연령 등의 인적자본요인이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이주여성과 일반시민의 창업의지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한편 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은 한국문화를 활용하는 창업을 할 때 새로운 법제도 및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인적자본인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는 연구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실증분석 결과 결혼이주여

성의 이주 후 인적자본투자가 취업가능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한 것(양인숙 외, 2010)이나, 직업훈련 경험이 소득에 부적 영향을 미친 결과(양인숙과 김선혜, 2011)는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인적자본투자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반면 장서영(2009)의 심층면접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에 이주 후 시도한 다양한 인적자본투자의 효과가 컸으며, 이로미(2009)의 심층면접은 모국에서 축적한 인적자본보다 이주 후 인적자본투자가 취업에 유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결과의 차이는 질적 연구를 통해 이주여성의 인적자본투자의 배경과 효과, 이들이 취업했던 직종의 특수성 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인적자본을 활용했던 경험과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거나 축적하려는 인적자본투자로 이어지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전 인적자본의 수준은 어떠한가?
2. 결혼 후 인적자본투자의 동기는 무엇이며, 어떤 유형의 인적자본투자를 시도했나?
3. 미래의 인적자본투자 계획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사례연구법을 선택하였다. 사례연구법은 관심 주제를 예증하기 위해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서 사례들을 탐색하며, 사례 기술과 사례에 기반한 주제들을 보고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사례연구법은 심층면접의 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각 사례에서 연구문제와 관련된 주제들을 찾아내는 사례 내 분석과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는 주제들의 패턴 또는 유형을 발견하는 사례 간 분석을 거쳐 사례들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조흥식 외 공역, Creswell 저, 2010).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법의 과정에 따라 연구참여자 별 심층면접의 결과를 연대기 순으로 기술하였으며, 사례 내 분석을 통해 각 연구참여자의 인적자본투자에 관련된 주제 및 범주를 만들고,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주제 및 범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려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결혼이주여성들의 인적자본투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3. 연구참여자의 선정과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심층면접의 대상자는 주로 대구광역시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복지관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청 지원 취업지원교육을 수강한 결혼이주여성들이다. 다양한 정보의 수집을 위해 결혼연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출신국, 자녀유무, 취업 및 인적자본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결혼연수는 한국생활적응과 출산 및 양육 경험, 그리고 인적자본투자 및 일 경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 이상 된 여성들을 선정하였다. 출신국은 언어능력을 고려해 결혼 당시부터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조선족, 모국에서 영어를 사용했던 필리핀,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하지 못했던 베트남의 3개국으로 선정하였다. 또 입국 후 다양한 인적자본투자 및 취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표집하기 위해 한국어를 비롯한 기초교육 및 취업지원교육에 참여한 여성들 뿐 아니라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취업한 여성들을 소개받았다. 심

〈표 1〉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인적자본특성

사례	출신국	결혼 년도	연령		직업		자녀수 (연령)	모국 학력	인적자본투자	초기 한국어 능력
1	조선족	2006	본인	30	모국	생산직	2 (6,4)	중졸	방송통신고 졸업, 취업지원교육, 전문대재학	매우 능통
					한국	다문화강사·통번역사				
			남편	44	자영업					
2	조선족	2003	본인	34	모국	생산직	1 (9)	중졸	초중고졸 검정고시, 방송통신대 재학	능통
					한국	사무직				
			남편	42	사무직					
3	조선족	2001	본인	36	모국	사무직	1 (12)	고졸	기초교육 취업지원교육, 방송통신대 재학	능통
					한국	다문화강사·이중언어강사				
			남편	46	생산직					
4	조선족	2005	본인	42	모국	사무직	2 (8,6)	전문대졸	기초교육 취업지원교육	낮음
					한국	아동양육방문지도사				
			남편	46	화물운전 중개업					
5	조선족	1999	본인	36	모국	서비스업	2 (14,10)	고졸	기초교육 취업지원교육, 방송통신대 재학	능통
					한국	학습지 교사				
			남편	45	생산직					
6	조선족	1995	본인	42	모국	교사/사무직	2 (16,11)	대졸	취업지원교육, 자격증 교육(컴퓨터 활용능력)	매우 능통
					한국	이중언어강사				
			남편	46	가내공업					
7	베트남	2006	본인	26	모국	생산직	1 (7)	중졸	기초교육 취업지원교육, 중졸검정고시	매우 낮음
					한국	통번역사				
			남편	37	생산직					
8	베트남	2005	본인	28	모국	무	1 (8)	고 중퇴	기초교육 취업지원교육,방통고 졸업, 전문대 재학	매우 낮음
					한국	다문화 음식점, 대학생				
			남편	45	일용근로자					
9	필리핀	2000	본인	37	모국	생산직	2 (9,4)	대졸	기초교육(복지관 및 대학 어학당), 4년제 대학졸업	낮음
					한국	시간제 영어강사				
			남편	47	생산직					
10	필리핀	2007	본인	30	모국	호텔 마케팅/캐셔	3(6.,3,1)	대졸	기초교육, 자격증교육(한국어능력 4급)	매우 낮음
					한국	이중언어, 시간제영어강사				
			남편	37	생산직					
11	필리핀	2005	본인	28	모국	판매원	1 (6)	고졸	기초교육 4년제 대학 재학	매우 낮음
					한국	대학생/ 시간제영어강사				
			남편	63	운전기사					

층면접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총 11명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개인적 경험의 다양성과 한국어능력에 따라 1회에서 2회의 면접을 시도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인적자본특성 관련 사항은 <표 1>과 같다. 이주여성의 연령은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하며, 남편과의 연령차는 6세부터 35세에 이르기까지 폭 넓다. 모국에서의 학력은 중졸부터 대졸까지 편차가 크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모국에서 취업했던 경험이 있다. 결혼 후 인적자본투자 경험으로는 한국어에 능통했던 3명의 조선족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조선족여성과 베트남, 필리핀여성들은 모두 한국어를 시작으로 한국문화, 한국요리 등 기초교육을 받았으며, 8명은 다문화강사, 이중언어강사, 통번역사 교육 등 취업지원교육을 받았다. 7명은 한국에서 방송통신대학, 전문대, 4년제 대학 등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사례 1, 2, 3, 5, 8. 9. 11)이며, 4명은 중고등학교를 방송통신과정이나 검정고시를 통해 마치는(사례 1, 2, 7, 8) 등 한국에서 학력 신장을 위한 인적자본투자를 시도했다. 이들은 모두 입국 후 취업 또는 시간제 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5명의 여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 다문화홍보교사, 이중언어교사로, 4명은 사무직, 학습지교사, 시간제 영어학원강사 등으로 일하고 있다.

Ⅳ. 연구 결과

1.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본

연구참여자들의 인적자본을 모국에서의 교육수준과 취업경험, 모국어와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1) 교육수준

연구참여자들의 교육수준은 국적이나 결혼연령에 따라 중졸부터 대졸까지 다양한 수준을 보였다. 비교적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필리핀 출신 여성 3명 중 <사례 9>와 <사례 10>의 학력은 대졸이다. 조선족여성 <사례 6>은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서 음식장사를 하던 어머니 덕에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사범대를 졸업할 수 있었다. 조선족여성 <사례 1>, <사례 2>와 베트남여성 <사례 7>의 학력은 각각 중졸로,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했다. <사례 3> 역시 교대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등록금 부담이 너무 커서 진학을 포기하고 고졸 후 취업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성장과정에서 부친이 일찍 사망해 가세가 기울거나, 형제가 많고, 부모가 농사나 단순노동의 일을 해 고등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형편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학을 하지 못한 사례(사례 1, 2, 3, 7, 8, 11)가 많다.

<사례 1> 중학교 나와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정형편도 그렇고 하니까... 사람들이 학교 나오면 돈 벌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빨리 돈 벌고 싶다'... 처음에 이모 소개로 식당에 갔어요... 아빠는 목공일 많이 했어요. 엄마는 계속 식당에서 일하셨고... 동생은 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의무교육이 아니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돈을 다 냈어요. 교재비고 다 냈기 때문에 그 돈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는 너무 멀기 때문에 (집에서) 왔다갔다 못해요... 한 몇 백 원 버는데서 교육비 절반 나가는데 나머지 가져다 가족생활 다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2) 결혼 전 취업경험

연구참여자들은 모국에서 졸업과 동시에 가족을 부양하고 가계를 돕기 위해 일했다. 필리핀의 가족관계는 확대가족에 가까워 부모, 형제와 생산과 소비, 가사와 자녀양육 등을 공유하는 경향

이 있으며, 베트남 여성은 경제적 역할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김현미, 2006).

필리핀여성 <사례 9>는 부친의 사망 후 언니의 도움으로 대학교육을 마칠 수 있었으며, 자신도 해외취업으로 돈을 벌어 모친이 거주할 집을 마련했다. <사례 11>은 고교 때 부친의 사망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돕기 위해 취업했다. 베트남여성 <사례 7>은 중졸 후 취업해 생활비와 동생의 학비를 보탰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조선족여성들도 가계를 돕거나 형제들의 학비를 위해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사례 1, 2, 3).

연구참여자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모국에서 취업경험이 있다. 취업경험이 없는 <사례 8>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 어머니의 살림과 농사일을 도왔다. 내성적인 성격의 그녀는 취업을 하려면 부모를 떠나 도시로 가야하는 부담 때문에 고향에 남았다. <사례 7> 역시 농촌 출신으로 취업을 위해 도시로 나가 16세부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았다. <사례 1>, <사례 2>, <사례 6>은 '더 넓은 곳을 경험해보고 싶어' 취업기회가 많은 도시로 이동했으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도 했다. <사례 9>는 대만, 그리고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사례 9 참조), <사례 10>은 국내에서 계약직 일을 계속 하다가 보다 안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 해외취업을 탐색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취업을 위해 지역이동이나 해외이동을 시도했던 경험이 결혼이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의 결혼 전 취업경험은 제조업체의 단순노동(사례 1, 2, 7, 9) 또는 판매서비스직(사례 5, 10, 11)이다. <사례 2>는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제조업체 중국 현지 공장에서 단순노동보다 노동조건이 나은 '상품검사' 일을 할 수 있었다. <사례 6>은 전공을 살려 고향에서 교사로 취업했으나, 친구들이 대도시에서 자신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보수와 자신의 발전을 위해 한국기업이 많은 도시로 무작정 찾아가 한국 완구회사의 중국 사무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사례 6 참조).

<사례 9> 한국에 오기 전에 다른 나라에서 일 했었어요. 대만 3년 정도 하고 3년 후에 여기 왔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만 갔어요. 2000년에 산업 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는데 한 2년 뒤에 남편을 회사에서 만났어요.

<사례 6> 대학 졸업하고 고향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게 되었어요. 2년인가 있다가 학교 도서관에서 조선족 신문을 우연히 보았는데 광고가 나와 있더라구요. 92년도부터 아마, 한참 한국 기업, 일본기업, 막 들어와서 '누구는 어디 가서 얼마나 잘 됐다 하더라..'... 제가 학교 월급이 195원이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칭다오나 상해 가서 600원, 700원, 많이 버는 애들은 1000원 씩 번다고 그랬거든요.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있던 학교가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작은 소도시? 젊었고 하니까 '더 큰 데 가서 발전해보겠다... 여기서는 비전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한데다가 신문을 마침 보고 그래서 (교사 자리를) 버리고 갔던 거예요.

이상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모국에서 지역이동 또는 해외이동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직과 취업을 했던 경험을 볼 수 있다.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들은 모국의 해외이주장려정책에 따라 해외의 노동이주나 결혼이주가 드물지 않았던 배경, 조선족여성들은 외국기업들의 중국 진출 활성화를 타고 현지의 한국기업에서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분위기에서 다양한 취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다.

(3) 모국어와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연구참여자들은 각각 다른 언어배경을 가지고

있다. <사례 1>과 <사례 6>은 성장과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조선족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입국 후 의사소통에 거의 문제가 없었다. 반면 <사례 4>는 부모가 하는 간단한 한국어를 알아듣는 수준으로 입국 후 남편의 기본적인 말 이외에 타인과 의사소통이 어려웠다(사례 4 참조). <사례 5>는 부모가 '중국에서 살'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아 말하기는 가능했으나 읽기와 쓰기, 어법 등에 서툴렀다. 따라서 조선족 여성들 중에서도 개인에 따라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에 큰 차이가 있었다.

<사례 7>은 한국남성과 맞선을 보던 친구의 영향을 받았다. 그녀는 국제결혼을 고려해본 적이 없었으나 친구와 친구의 부모가 '한국남성과 결혼하면 미래도 있다'며 같이 한국에 가면 좋겠다는 설득에 '동생들을 위해' 국제결혼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마음의 준비 없이 갑자기 결혼중매업소를 통해 맞선을 보기 시작한 한 달 만에 결혼이 성사되고 한국어를 처음 접한 그녀는 입국 후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시급했다.

필리핀여성들도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것은 베트남여성과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생활에서 큰 인적자본의 역할을 한다. 이들은 한국어가 서툴러도 시급히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적고, 영어의 활용도가 높아 학원이나 교회, 복지관에서 영어강사로 일할 수 있었다(사례 9, 10, 11).

이와 같이 국적에 따라 이주여성들의 모국어와 언어자원이 한국사회에서 유용한 언어로 인정될 수 있거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이들의 언어는 차별화되는 인적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4> 조선족이지만 집에선 엄마, 아빠가 '밥 먹어', '숙제해' 그냥 간단한 말은 알아들어요. 근데 말을 못했어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대답 못했어요... 조선족 자치구에서 생활하면 한국 생활습관 거의 비슷한데, 우리는 친척이랑 떨어져서 허용강성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쭉 중국학교 다녔어요. 그냥 엄마, 아빠 조선족이니까 호적에 조선족 쓸 뿐이죠. 실제는 한족이랑 똑같아요.

<사례 11> (영어강사 일을) 친구한테 소개받았고, 그 학원이 이 동네에 있으니까 저한테 소개해줬더라고요. 또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다문화 애들한테 문화 가르치는 거 있는데 영어 가르쳐 달라하니까 영어로 했어요.

2.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본투자

1) 인적자본투자의 동기

연구참여자들이 인적자본투자를 하게 된 동기는 모국에서의 학력, 한국어능력 등 자신의 인적자본과 주변의 지지, 그리고 체류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1) 초기 적응을 위해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조선족 여성 <사례 4>와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었던 베트남 여성 <사례 7, 8>, 그리고 필리핀 여성 <사례 9, 10, 11>에게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이었다.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입국 초부터 한글학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성당 등을 찾았다. 이들은 학원을 제외한 많은 곳에서 무료교육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었으며, 한국어를 배우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점차 다른 교육에도 참여했다. 이러한 교육은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었던 자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기회'이며 '놓치기 아까운' 제도이다. 그러므로 이주여성들의 초기 적응을 위해 필수적인 한국어교육 이외에도 취업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

육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인적자본투자를 유도했다. 또 ‘모국에는 없는 좋은 제도’로 인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4> 다문화센터에서 처음에는 한국어, 한국문화체험 아니면 요리, 그리고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한국 생활 한국 문화 이런 거구나'... 많이 도움 됐어요. 다문화센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많아요. 한국에서는 복지 쪽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주여성 쪽으로, 기회 너무 많아졌어요. 놓치기 아쉬워요.

(2) 자녀 교육을 위해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연구참여자들을 ‘한국어교육’으로 유도하는 중요한 동기는 자녀교육자 역할에 대한 부담이다. 입국 초기 적응과 의사소통을 위한 동기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동기가 자녀를 임신, 출산하면서 더욱 강화되어 엄마로서 자녀를 무리 없이 양육하고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며(사례 4), ‘아이를 위해서 배워야겠다’는 엄두를 내게 된다(사례 7, 8, 9, 10). 이러한 동기는 시부모에 의해 더욱 촉진된다. <사례 4>는 첫 아이 출산 후 시아버지가 ‘아이 교육을 위해’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돌보아주도록 했다(사례 4 참조). 시부모와 동거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여성들은 시부모의 정보력이나 손자녀를 돌보아주는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찾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게 되었다(사례 4, 7, 10).

조선족 여성 <사례 5>는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해 복지관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자녀가 커가면서 자신이 좋은 학력을 갖추는 것이 자녀에게 좋은 배경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진학을 고려하게 되었다(사례 5 참조).

필리핀 여성 <사례 9>는 한국사회에서 자녀교육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더 나아가 대학교육을 받을 필요성을 느꼈다. 한국의 교육제도를 경험하는 것은 앞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엄마의 역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특히 자신이 한국의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한국어교육에서 시작해 대학교육까지 받게 된 동기를 ‘자녀교육’에서 찾고 있다(사례 9 참조).

<사례 4> 처음에는 말을 못해도 남편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거 못 느꼈어요. 근데 애기 있으니까 애기 아파요. 남편이 집에 없고, (제가) 말을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애기 6개월부터 다문화센터 나가서 한국어 배웠는데, 만약에 애기 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안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지 애를 위해서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한국어 빨리 배우라고... 애기 키워야 되는데

<사례 5> 아이들도 나중에 부모 학력 적을 때 ‘고졸밖에 안 된다’ 보다는 그래도 ‘대졸이 낫지 않겠나..’... 하나라도 더 적게 하고 싶고, 그 때부터 생각이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사례 9> 전 교육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전 외국인이라서 우리 애가 학교 가서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니까... 큰 애가 2학년이에요. 만약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이들 어떻게 하는지 한국 사람보다 전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3) 학력 신장을 위해

<사례 2>는 7세 때 부친이 사망한 후 가계가 어려워지자 중졸 후 취업을 해야 했다. 그녀는 현재 남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가면 공부하고 싶은데 지원해줄 수 있나’를 물어볼 정도로 중졸 학력에 대한 미련과 학력 신장에 대한

욕구가 컸다. 그러나 결혼이주 후 호의적인 가족과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친지의 도움으로 불편함이 없었고 스스로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외국생활에서 위축되어 있었다. 더구나 검정고시에 두려움이 앞서 검정고시학원에 등록하는 것조차 엄두내지 못하고 계속 미루었다. 그녀가 '학력 신장'에 대한 동기를 다시 찾게 된 계기는 오히려 직장생활경험을 통해서 였다. 1년간의 직장생활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일을 하려면 낮은 학력을 신장시켜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사례 2 참조).

중국에서 등록금 부담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사례 3>은 '공부'에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어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인 동사무소를 무작정 찾아가 문의한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정보를 얻었다. 그러나 대학 캠퍼스 내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지 못하자 그녀는 주눅이 들어 포기하고 다시 일 년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독립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사례 3 참조).

<사례 2> 움츠리게 되요. 어쨌거나 중국보다 선진국이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중국은 이런 것 없었는데 한국 오니까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가서 부딪힐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자신감이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없어서 (검정고시를) '나중에 해보자' 그러고 시간이 지나고, 다음에 상담하러 갔다가 또 못가고 그랬거든요... 학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중국어를 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를 잘 쓸 수 있으려면 '학력부터 쌓아야겠다...' 그래서 '검정고시, 고등부터 따놓자'

<사례 3> 공부하고 싶어서 동사무소에 물어봤어요. 처음에 찾아왔는데 대학교가 워낙 크잖아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집에 갔어요. 한 번 포기하니까 또 쉽게 오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한 일 년 됐을 거예요.

(4) 더 나은 일을 찾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이 다양한 인적자본투자를 시도하는 동기는 궁극적으로는 사회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한국인과 같이 일하며 사회에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정규직에 도전하기 위해, 또 현재의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더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적자본투자를 하고 있었다(사례 2, 5, 6, 9). 또한 이주여성들보다 한국사정에 더 밝은 남편들의 지지에 따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입국 초부터 취업보다는 진학을 시도한 사례들(사례 1, 8, 11)이 있었다.

<사례 6>은 중국 내 한국기업에서 상사인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첫 아이 출산 후 중국에 파견 근무를 하던 남편이 '가족과 떨어지기 싫어서' 직장을 그만 두고 '노는' 생활이 계속되자 그녀는 생계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졸 학력과 한국어실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다. 그녀는 첫 번째 일로 주방 아르바이트를 할 때 중국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한국에 입국해 그녀를 찾아와서 작업복 차림의 모습을 보고 놀라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이를 계기로 그녀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 야간에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우게 된 것이 한국에서 시도한 첫 번째 인적자본투자이다(사례6 참조).

<사례 5>는 자신의 인적자본인 중국어능력을 살려 학습지교사로 일하고 있다. 고졸인 그녀는 취업에 필요했던 최종학력이 '고졸'로 문제될 것

은 없지만 학부모들이 교사의 학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부담을 느끼고 대졸 학력을 갖추려고 한다. 또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오르는 미래의 목표도 그녀가 대졸을 목표로 인적자본투자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사례5 참조).

<사례 1>의 경우 14세가 많은 남편이 일을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 공부부터 할 것을 권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남편이 공부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것은 그녀의 기존 학력으로 가능한 공장이나 식당 일보다 '편하고 깨끗한 사무직 취업'을 위한 것이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가 당장 가능하지만 '힘든 단순노동'보다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한 것이다(사례1 참조).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기존의 인적자본으로 가능한 일보다 '더 나은 일'을 찾기 위해 한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인적자본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

<사례 6> 친구도 나를 보더니만 깜짝 놀래요. 말은 안 해요. 근데 얼굴에 다 쓰여 있거든요. '너는 중국에 있으면 공무원인데 이렇게 살 줄 몰랐다'는 그 표정을 봤을 때는... 정말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어, 지금도 전혀 안 잊혀요. '이거는 아니다'. 그런데 뭐를 알아야 취직을 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 학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사례 5> 일하면서 힘든데도 방송통신대학을 꼭 다녀야 되는 이유는 일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돼요. 제가 원어민이라 장점이고 중국어 자격증도 있지만, 그래도 학부모님이 '선생님 (학력이) 어느 정도 되요?'... 자격증 있는 걸로 안 되고, 교육 어느 정도 받았는지, 사무실로 물어봅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필요하죠.

<사례 1> 남편이 '나중에 내가 일 못하고 잘 못될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네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3년 전부터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고요.

(5) 일과 동료의 자극

연구참여자들 중 5명은 결혼이주여성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일자리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 아동방문교육지도사, 다문화강사, 그리고 이중언어강사로 일하고 있다. <사례 7>은 중졸이나, 입국 4개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부터 시작해 모든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열의와 한국어 실력을 인정받아 불과 2년 만에 통번역사로 추천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입국 초기에는 '일'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학력이 낮고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지 한국어를 배우고 모국친구들을 만나는 목적으로 센터에 열심히 다녔다. 오히려 우연한 기회에 통번역사로 취업한 후 자신의 학력이 한국인 동료에 비해 낮은 것을 의식하고 일에 적합한 학력을 갖추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되었다.

<사례 5>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동방문교육지도사로 채용되면서 한국인 동료에 비해 낮은 자신의 학력에 위축되어 고민하다 진학을 서두르게 되었다. 중국어 원어민교사로 일하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이때의 경험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던 것이다(사례 5 참조). 동료로부터의 자극과 학구열은 직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사례 9>는 한국어학당에서 동료학생들이 수료 후 대학 편입을 하는 것에 자극받아 모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3학년으로 편입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 교육과 일을 경험하면서 직장과 사회에서 요구되는 학력을 의식하고, 이를 갖추기 위해 인적자본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다른 인적자본투자 동기들이 자신의 의식과 필요에 의해 스스로 선택한 동기인 것에 비해, '일과 동료로부터 자극' 받아 인적자본투자를 시작한 것은 외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서 한국사회를 알아가고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강화된 특징이 있다.

<사례 5> 저만 고졸이었어요. 원어민이다 보니까 뽑아주셨는데 왠지 위축된 기분? 발표할 때도 최대한 단어가 적은 거 주려 하시는데, 그 분들은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속상하거든요. '어? 나도 연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배려를 해주시니까.. 나쁜 마음은 아니니까 원망은 못하겠고, 나서서 했다가 사람들 기대에 못 미치면?... 그런 거 고민됐죠. 2년 될 즈음에 '어떻게 하지? 여기 그만두고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 일거고. 조금 더 공부하고, 더 찾아야 되겠다.'

2) 인적자본투자의 유형

연구참여자들이 입국 후 시도한 인적자본투자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언어와 문화적응을 위해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기초교육프로그램 참여와 학력 신장을 위한 진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또 진학은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학력수준이나 취업기준에 맞추기 위해 학력을 신장시키려는 유형과 자신의 인적자본을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전문직 진출을 목표로 한 자발적으로 진학한 유형으로 차이를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지금까지 시도한 인적자본투자의 유형과 지속성, 다양성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1) 공공기관의 기초교육 참여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던 여성들(사례 4, 7, 8, 10)은 한국어교육부터 시작해 한국음식, 한국문화와 역사 등 기초적인 교육에 참여하면서 점차 한국생활에 적응해갔다. <사례 4>는 지역사회시설의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방문교육제도가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자 자신의 완벽하지 않은 한국어실력으로는 미진한 자녀의 한글교육을 위해 신청했다. 그녀는 방문교육교사에게 한국식 자녀교육에 대해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도움을 받기도 했다. <사례 8>은 입국 초 성당의 한글교실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 복지관에서 한국어를 꾸준히 배우면서 세계문화지도자 과정,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참여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던 이주여성들은 입국 후 첫 번째 인적자본투자로 한국어교육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를 시작으로 다른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다른 인적자본투자를 계속하면서 한국사회를 알아가게 된다.

<사례 8> 복지관에서 한국어 배우게 됐어요. 지금까지 한 3년? 기초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요즘은 자주 못 가는데. 그 대신 세계문화지도자도 배우고... 여러 나라의 문화, 한국역사도 배우고, 아기 책 읽히는 방법도 배우고요... 봉사활동은 꾸준히 한 달에 1번, 2번씩 해요. 저희는 노인 생일잔치상 아니면 어린이집 아이들 문화 체험, 그런 거하고, 요즘에는 바자회나 옷 체험, 아니면 공연, 인형공연도 하고요.

(2)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학력에 도달하기 위한 진학

학력이 낮은 여성들은 어느 정도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자 학력 신장을 위한 진학에 적극적으로 도전했다.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았던 여성들(사례 1, 7)은 입국 후 자신의 학력이 한국사회에서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의 벽에 부딪히자(사례 2, 5) '학력 신장'을 위한 인적자본투자를 시도했다.

<사례 2>는 중졸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결혼 후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없어 계속 미루던 중 취업했던 경험을 통해 학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고졸 검정고시에 도전했다. 그러나 고졸 자격 취득 이후 구직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중국어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장에서는 고졸자를 채용하지 않는 '학력의 벽'을 또

한번 절감하고 방송통신대학에 진학했다(사례 2 참조). <사례 5>의 첫 번째 일은 우연히 시작한 중국어 개인지도였다. 이때 학생들이 자신의 중국어 실력보다는 '학력을 더 따지는' 현실에 부딪히자 대학 진학을 생각해왔다. 그녀는 진학을 망설이던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완벽하지 않았던 한국어 쓰기, 문법 등을 배우다가 우연히 아동양육방문지도사로 채용되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한국인 동료에 비해 낮은 자신의 학력을 의식하면서 미루어 왔던 전문대 진학을 결정하였다.

<사례 2> 제가 학교를 많이 못나왔잖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자신감도 되게 없었고... (검정고시에) 못 덤비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몇 년 전에 했거든요... 한국은 (학력을)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방송대가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4년제 나왔다는 거에 대해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가보자 하고 가고 있어요.

(3) 정규직을 위한 자격증 교육

한국어에 능통하고 대졸 학력이었던 <사례 6>은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하자 주방 아르바이트로부터 시작해 보험회사 영업사원, 부업, 남편의 가내공업 보조 등을 거쳐 중국어학원 강사로 일하게 되었다. 중국어강사는 우연히 학원 간판을 보고 구한 일자리이지만 자신의 전공과 교사 경력을 살릴 수 있어 '드디어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게 된 뿌듯함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 더욱이 이전에 했던 일이 '생계를 위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업체에서 임금을 떼이기도 했던 것에 비하면 가장 많을 때는 한 달에 290만원의 강사료를 받을 정도로 이전과 비교되지 않는 고소득이었다. 그러나 점차 중국어 붐을 타고 난립한 학원들로 수강생이 줄어든 데다 둘째 아이의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4년 만에 그만 두었다. 현재 그녀는 중학교의 이중언어강사로 적성에 맞고 보람 있으며 가르치는 학생들이 귀엽지만, 보수가 너무 적고 단기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 일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 적성에 맞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는 그녀는 정규직 교사가 되는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그때를 대비해 자격증과 제 2외국어, 중국어 능력시험 등의 인적자본투자를 하는 중이다. 그녀는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타인과 차별되는 '스펙'을 위해 자격증, 공인영어점수를 갖추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적자본투자를 하면서 정규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례 6> 중고등학교 때 6년 동안 일본어 했어요... 더욱이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일본어 틈틈이 공부하고,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컴퓨터 하고 있어요. 자격증 따야죠. 얼마 전에 엑셀, 지금 파포 자격증반에 공부중이고, 한국어는 능력시험 따 놓았고, 중국어 HSK도 6급 시험 봐야죠.

(4) 인적자본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 진학

필리핀 여성들(사례 9, 10, 11)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과 영어 자원을 바탕으로 학원강사나 개인지도를 친구들을 통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활용도가 높은 영어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 전문직인 영어교사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중 두 명(사례 9, 11)은 미래 목표를 위해 각각 4년제 대학의 영어교육과와 영문과에 진학했다.

<사례 9>는 모국에서 영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영어교육과에 편입했다. 그녀는 다른 영어교육과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임용고사에 합격해 영어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영어교사가 되는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례 9>와 달리 <사례 11>은 남편이 '학교를 보낸' 경우이다. 그녀는 현재 대학교를 다니면서 시간제로 학원이나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 '너무 재미있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때문에 졸업 후 학교나 학원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35세나 많은 그녀의 남편은 아내의 영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과에 진학시켰다. 그녀는 영어교사가 되면 '혼자 돈 버니까 힘든 남편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이점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녀의 진학은 남편이 돈을 벌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전문직에 진출해 소득원이 되기 위한 인적자본투자이다.

<사례 9> 될 수 있으면 선생님 되고 싶어요. 전 그냥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 하는 게 목적 없어서. 예를 들면 일 년 동안 공부하고 내가 뭐 얻은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싫어요)... '난 여기 졸업했다' 아니면 아 '난 이정도 공부했다, 이정도 벌었다' 그런 거...

3. 미래의 인적자본투자

연구참여자들이 지금까지 인적자본투자를 해온 동기와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미래 생활과 관련이 있었다. 이들의 미래 인적자본투자의 목표와 계획들은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지금까지 어떤 동기로든 인적자본투자를 계속해 목표했던 대졸 학력을 갖추었거나 과정에 있는 여성들의 미래는 '하고 싶은 일'로 귀결된다. 그런데 그들이 미래에 하고자 하는 일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인적자본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즉, 조선족 출신 여성들은 중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중국어교육, 중국무역 등의 일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사례 2, 3, 5), 필리핀 여성들은 영어자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어강사 또는 영어교사를 희망하고 있다(사례 9. 10. 11). <사례 5>는 자신의 적성과 전문대에서 공부한 '사회복지상담' 전공을 살려 아동복지기관이나 유치원 취업을 원했지만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진입장벽이 적은 중국어 학습지교사로 취업했다. 학습지교사는 처음부터 원했던 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인적자본을 살려 '잘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중국어교육을 앞으로 자신이 '할 일'로 재설정한 상태이다(사례 5 참조).

둘째, 가까운 미래에 대학에 진학하려는 계획을 가진 여성들이 있었다. <사례 4>는 지금까지 기초교육이나 취업교육이 '놓치기 아까운 기회'여서 계속 참여했던 것처럼 방송통신대학 역시 등록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입학할 계획이다. 현재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사례 3>은 졸업 후 일을 해 돈을 모은 다음 전문대에 진학할 생각이다. 방송통신대학은 일과 살림, 그리고 학업을 병행하며 등록금이 부담되는 그녀에게 많은 제약을 덜어주는 이점이 있지만,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욕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인적자본투자를 계속할 계획이다(사례 3 참조).

셋째,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들은 한국어를 비롯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적자본투자를 가능한 한 계속 하려 한다(사례 8, 9, 10). 결혼이주와 동시에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야 했던 이들에게 한국어는 배워도 여전히 어렵고, 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한국어실력이 나아져도 이주국의 언어를 잘 모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다(사례 8). <사례 9>는 결혼 초 복지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운 것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한국생활의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교육기회를 잘 활용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의 기초교육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적자본투자의 유용성을 경험해온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사례 10 참조).

<사례 5>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거고, 장점

은 장점 따로 고, 잘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냥 이쪽(학습지교사)으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 중국어교육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갈수록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길이... (처음과는) 조금 바뀌었죠.

<사례 3> 이주여성이 한국에 와서 가정주부가 할 수 있는, 많은 등록금을 내고 다른 학교 가기에는, 남편이 또 지지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좀 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방송통신대학) 갔다가 취직을 하고 돈을 벌게 되면 조금 좋은 데, 2년제 전문대? 이런 데를 한 번 가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례 10> 계속 (한국)말을 배우고 싶고, 토픽 시험에서 3급만 땄거든요. 5급까지 따고 싶고요. 한국요리, 요리 교실도 가보고 싶고...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생활에서 다른 연구참여자들과 차이 나는 경험으로 인해 미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2명의 사례가 있었다. <사례 6>은 현재 하고 있는 이중언어강사가 전공을 살리고 적성에도 맞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은 방학을 제외한 8개월 간의 계약직으로 근무시간이 짧은 대신 보수가 적기 때문에 지속적인 직업으로 전념하기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있다. 더구나 수입이 불안정한 남편을 대신해 생활비와 중학생인 딸에게 앞으로 들어갈 대학등록금을 생각하면 단순노동이라도 보수가 많은 생산직으로 조만간 전직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 그녀는 결혼이주 당시부터 한국어에 능통했고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이중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인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데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사례6 참조).

<사례 8>은 한국인의 차별적 언사를 여러 번 경험하였다. 시장이나 거리 등 공공장소 뿐 만 아니라 이웃,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의 동료학생으로부터 이주여성들을 무시하는듯 한 언행을 직접 경험하면서 앞으로 이주여성들을 돕는 '다문화 쪽'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다문화 관련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우선 이 분야에서 요구되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딸 계획이다. 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따돌림 예방 교육이나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에 관심이 있어 다문화홍보교사 교육을 받고 싶어 한다. 그녀는 다른 연구참여자들과 달리 일상생활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였으며, 진로에 맞게 미래 목표를 세우고 필요한 인적자본투자를 하려고 한다(사례 8 참조).

<사례 6> 앞으로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벌어서는 딸내미 대학 공부 못 시킬 것 같아요. 지금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돈이 되는 일을... 저희들 걱정은 정부예산이 없으면 우리는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정부지원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힘들더라도 더 견뎌보자'고 자꾸 하시는데, 그래서 갈등 생겨요. '돈을 보고 이거(이중언어강사)를 버리고 단순노동을 선택했다가...' 학교에서 정식교사, 공무원 되는 거, 그렇게만 되면 더 이상 바랄게 없죠.

<사례 8>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에 대해 인식 안 좋은 사람 아직 좀 많아요. 저희는 주택에 사는데 누가 음식 쓰레기 아무데나 버렸어요.. 우리(는) 외국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인식 있어요. 다 구분해놨는데도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네가 쓰레기 버려 놨다."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한 두 명씩 '다문화니까 애기 봐야지, 한국말도 모르면서 왜 학교 나왔냐'고.. 사람을 괴롭혀요. 일부러 큰 소리로 얘기한 것 같아요,

Ⅴ. 분석

지금까지 이주여성들의 인적자본투자 경험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인적자본투자의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을 추론하고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던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들의 인적자본투자는 결혼 전 인적자본의 양상과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미래의 계획 및 목적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인적자본투자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지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며, 연구참여자들의 인적자본투자가 궁극적으로는 미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연구참여자들의 인적자본투자의 특성을 인적자본투자 이전 단계와 현재의 관련성, 그리고 결혼 후 인적자본투자 경험 및 성과, 그리고 미래계획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결혼 전 인적자본의 유용성과 결혼 후 인적자본투자와의 관련성

인적자본론에 의하면 개인의 교육수준, 취업경험, 이주국의 언어 구사능력 등의 인적자본이 이주국에서의 취업과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교육수준은 취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적자본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교육수준이 한국사회에서 인적자본으로 활용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는 인적자본론을 지지하는 선행연구에서 이주자의 모국에서의 교육수준과 취업경험이 고용가능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기본 관점 및 실증분석 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인적자본론은 주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비해 본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을 위해 이주한 여성들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그밖에 성별의 차이, 이주노동자에게 개방적인 일부 이주국의 이민정책과 산업구조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양인숙 외(2010), Ho(2006)의 실증연구에서 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국에서 취업경험이 있을 때 취업가능성이 높았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이나, 이는 연구방법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필리핀여성들은 학력의 효과보다는 모국의 언어자원이 한국사회에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모국인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제 일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처럼 영어자원의 유용성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과 언어가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한다는 김현숙(2006)의 견해와 같은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필리핀 여성참여자들은 영어자원이 영어강사로 활동하는 데는 이점이 있으나 전반적인 한국생활에는 이점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습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유용한 언어자본도 한국어와 같이 활용되어야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장서영(2009)이 외국어강사로 활동하는 이주여성들의 모국어에 앞서 한국어가 가장 중요한 언어자원이며, 외국어와 한국어의 이중언어능력을 취업의 성공요인으로 본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인적자본 중 학력은 한국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한편 활용도가 높은 모국어는 취업이나 진로를 모색하는데 유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결혼 전 인적자본을 한국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경험이 오히려 인적자본투자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 6>은 이중언어강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를 대비해 여러 가지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사례 9>와 <사례 11>은 차별화되는 영어자원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 대학의 영문과에 진학했다. <사례 2>와 <사례 5>는 이주여성 우선 일자리가 아닌 일반사무직, 서비스직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가능자를 구하는 직장에서는 중국어능력 뿐 아니라 '대졸' 학력을 요구하거나(사례 2), 중국어강사의 중국어실력보다는 '대졸 학력'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어 다시 '방통대' 중문학과에 진학했다(사례 5). 이들은 각각 자신의 인적자본인 중국어와 영어를 잘 활용하기 위해 한

국사회에서 통용되는 유형의 인적자본투자인 자격증 취득, 4년제 대학 진학을 시도한 것이다.

2. 인적자본투자의 성과

연구참여자들의 결혼 전 인적자본수준이 다르다는 것은 이들의 인적자본투자의 동기 또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자 다른 동기에서 시작한 인적자본투자 과정에서 동기가 충족되었는지,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었거나 매우 서툴렀던 여성들이 처음으로 시도한 인적자본투자는 '초기 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교육이었다. 한국어를 하루 빨리 배워 의사소통을 하고 자녀를 교육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기 적응을 위해' 서둘렀던 인적자본투자는 이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유용했다. 연구참여자 중에는 초기 적응을 위해 기초교육에 참여하던 중 통번역사, 방문지도교육사로 추천받아 취업하게 된 사례들(사례 4, 7)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인적자본투자를 통해 '초기 적응을 위한' 동기가 충족되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취업'을 하게 되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

학력이 낮았던 여성들은 '학력 신장'을 위한 동기에서 인적자본투자를 시작했다(사례 2, 3, 8). 이들이 선택한 인적자본투자는 검정고시 또는 방송수업으로, 최근 시에서 등록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이주여성들이 시도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여성들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학력 신장'이라는 인적자본투자의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례 5>와 <사례 9>는 '자녀교육'을 잘 하기 위해,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자극받고' 각각 일반대학인 전문대와 4년제 대학에 진학했다. 이들은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우선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한국어실력이 대학의 전공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서툴렀고,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입학을 후회하고 포기를 생각하기도 했다(사례 5). <사례 9>는 육아를 위해 친정어머니를 초청하기도 했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휴학하고 영어강사로 일했다. 이들이 어렵게 결심하고 공부한 인적자본투자의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다. <사례 5>는 자신이 선택했던 전공을 살려 아동복지기관에 취업하려했지만 기혼의 이주여성을 선호하지 않는 풍토와 편견으로 취업이 어려웠다. <사례 9> 역시 원했던 영어교육과를 졸업했지만 임용고사에 합격해야 하는 관문이 남아있다. 따라서 이들의 인적자본투자를 시작하게 한 '자녀교육을 위한' 동기와 '동료와 비교'로 인한 동기는 '대졸' 학력을 갖춤으로써 충족되었으나 '더 나은 일을 위해' 즉, 전문직에 취업하고 원하는 지위에 오르는데 까지는 아직 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 1>, <사례 8>의 남편은 아내의 학력으로는 단순노동 이외에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판단하고, <사례 11>의 남편 역시 아내가 영어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졸 학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인적자본투자를 시도하게 했다. 이들이 남편의 생각대로 사무직이나 전문직에 취업할 수 있을지 그 성과는 아직 판단할 수 없으나 학력 신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노력하면 배울 수 있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경험도 한국생활적응에 도움이 되었다.

3. 인적자본투자 경험이 미래 계획에 미친 영향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결혼이주 후 지금까지 인적자본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들은 인적자본투자를 위해 참여했던 교육을 이주여성들을 지원해주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계속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

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의 지금까지의 인적자본투자 경험이 미래의 인적자본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첫째, 이주여성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이에 참여한 자신의 인적자본투자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례들(사례 3, 4, 9)은 이러한 교육을 모국에는 없는 '좋은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교육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고, 일 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을 한국생활에서 가장 만족하는 점으로 꼽기도 했다. 이들은 고졸 또는 대졸자로 '학력 신장'을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며, '어떤 교육이나 강의도 들을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적자본투자를 계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둘째, 학력이 낮았고 한국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베트남여성들(사례 7, 8)은 학력이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인적자본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계속 검정고시 또는 한국어능력시험을 칠 계획을 갖고 있다. 즉, 자신이 목표로 하는 학력이나 자격증이 아직 달성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미래의 인적자본투자의 방향과 목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특징이 있다.

셋째, 일반인 대상 일자리에 취업했던 사례(사례 2, 5)들이 있다. 이들은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탐색과 면접 등의 구직과정을 거쳐 취업에 실패를 겪기도 하고 성공하면서 한국의 직장문화와 직장인에게 요구되는 조건들을 파악하고 이를 갖추기 위한 방향으로 인적자본투자를 해왔고 결과적으로 인적자본을 향상시켜왔다. 그러므로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계획했던 교육투자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는 일 경력을 쌓거나 승진과 직업 안정을 위한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지금까지의 인적자본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목적과 유형은 다르지만 인적자본투자를 계속할 의사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Ⅵ. 결론

본 연구의 참여자인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기술과 분석에서 나타난 특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인적자본투자의 동기 및 유형은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차를 가져오는 배경은 인적자본투자의 자발성과 한국어 구사능력이었다. 한국어를 할 수 있었으며 인적자본투자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조선족 연구참여자들은 중졸 또는 고졸 학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동기에서 '자발적'으로 진학을 원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상적인 경험이 아닌 시험이나 진학이라는 새로운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자신이 없었다. 더구나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서툴러서 어떤 형태로든 인적자본투자를 서둘러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나 가족의 재촉 등 외부의 자극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행하기 까지 오랫동안 혼자 고민하고 망설였다. 반면 학력이 낮았지만 한국어가 가능했던 조선족 여성 <사례 1>은 가계를 돕기 위해 '일'을 하려 했으나 남편의 의지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학력 신장을 위한' 인적자본투자를 시작했다. 그녀는 한국어에 익숙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방송고등학교 진학과 다문화강사교육 등 인적자본투자 후 다문화강사, 통번역사로 취업할 수 있었다. 그녀의 성공적인 인적자본투자의 성과는 남편의 장기적인 계획과 정보수집능력에 따라 진학, 시간제 강사, 전일제 취업, 전문대 입학의 단계를 성실히 밟아온 결과이다. 이는 그녀가 한국어에 능통해 자신의 언어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이중언어능력과 다문화경험이 인적자본으로서 활용된 사례이다. 한편

한국어가 가능하지 않았으며 인적자본투자 또한 비자발적으로 시작한 베트남 여성사례들은 학력이 낮으며, 20세 전후에 결혼해 취업 또는 다양한 삶의 경험이 없었다. 이들은 하루 빨리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기본적인 한국어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으며, 남편이나 시부모의 재촉도 자극제가 되었다. 즉, 이들에게는 '초기 적응을 위한' 인적자본투자가 필수적이며, 본인들이 정보력이 없는 대신 가족의 심리적 지원은 이들이 교육현장으로 나가는 용기를 내게 된 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인 지지원이었다.

둘째, 이주여성들의 인적자본투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첫 단계는 입국 초기로서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었던 여성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집 근처의 복지관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어 나간다. 두 번째 단계는 초기 적응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주여성들이 사회적 분위기와 일을 경험하면서 학력에 대한 욕구가 동기화되어 방송통신대학 뿐 아니라 4년제 대학교 등 학교교육에 투자한 것이다. 교육투자는 일의 지속성을 유지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할 수 있었던 조선족여성들의 경우 첫 번째 단계인 초기 적응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었지만, 이들 역시 중기에 접어들면서 구직과 취업과정에서 학력의 벽에 부딪히고 동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에 자극받아 인적자본투자를 시작했다. 그 다음 단계로 이들은 취업에 성공한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인적자본투자를 계속 했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의 인적자본투자의 동기는 입국 후 단계적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초기에 비해 중기, 그리고 후기로 갈수록 동기가 변화된다는 것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인적자본투자를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지금까지 시도한 인적자본투자의 유형 중 한국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사례의 인적자본투자 성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한국인과 경쟁하는 직종과 전문직 진출에 한계를 보여준다.

넷째, 이주여성들의 미래 인적자본투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적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일을 위한 계획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즉, 한국사회에서 활용도가 높은 중국어나 영어 사용자들은 미래에 하고 싶은 일로 어학교사 또는 어학원 운영, 무역회사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래에도 인적자본투자를 계속할 계획이다. 그만큼 자신들의 언어자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졸학력과 중국어 교사경력이라는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직 이중언어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는 현재 이주여성취업지원교육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계되거나 취업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로서 앞으로 이주여성지원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를 보여준다.

이상의 결론으로부터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면 첫째, 이들이 인적자원투자를 활발히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문화정책의 개입 효과가 크다.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희망근로 일자리 창출프로그램, 다문화홍보교사 양성과정, 이중언어강사교육 등이 제공되어 학력이 낮고 한국어가 서툴러 취업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여성들에게 학력 신장의 물꼬를 터주고, 일에 대한 미래 목표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교육청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대학 진학을 지원하고 있어 이주여성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과 지원은 우리 사회에 던져진 딜레마이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된 결혼생활을 하기 위

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취업지원교육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교육은 이주여성들의 언어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문화강사, 통번역사, 이중언어강사 등 특수한 직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 직종도 중국어, 영어 등 일부 언어 사용자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의 취업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이 어떤 형태로 언제까지 지원될 수 있는가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며, 장기적 계획 하에서 교육 후 일자리와의 연계, 연계된 일자리의 질과 양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주여성들의 모국에서의 인적자본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적자본투자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된 이주여성들이 교육정보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들에게 교육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은 남편과 시부모, 직장동료, 그리고 지역사회시설의 종사자들이다. 남편의 계획이나 시부모의 지원은 연구참여자들이 인적자본투자를 시작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참여자들에게는 이주여성지원시설의 종사자들이 공적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뿐 아니라 이주여성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동기에 적합한 조언과 상담, 사적 정보를 제공하는 심리적 지지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종사자들이 이주여성 개개인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여성들이 효과적으로 인적자본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들에게 매우 필요한 도움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종사자의 업무와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과 결혼이주여성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 이용자 중심으로 모집하였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전형적인 특화 직종 취업자가 다수 포함되었다. 이들은 인적자본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왔고 따라서 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혜택을 경험한 여성들 위주로 표집한 한계가 있다. 인적자본투자를 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 생산직 종사자들이나 지역사회시설의 교육 경험이 적은 여성들의 인식과 경험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집단별 인적자본특성에 적합한 교육기회와 지원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제안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이 현재에 비해 미래의 인적자본투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생각이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 풍부한 진술을 얻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미래에 원하는 삶과 목표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을 더 발굴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초기 적응기를 지나 어느 정도 한국생활에 정착한 여성들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고용노동부(2011).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추진인력 및 향후방향. 고용노동부.
2) 김경아(2012). 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의지 결정요인분석 : 이주여성의 정책인지수준과 지역사회 다문화태도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1), 381-409.
3)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김이선·김민정·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5) 김현미(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 10-38.

6) 김현숙(2006). 부산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16(1), 163-176.
7) 김현숙·김희재·오중환(2011).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의 질의 결정요인 :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1), 27-51.
8) 김희주·은선경(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한 대처전략에 관한 사례연구-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겨울, 33-66.
9) 석현호(2000). 국제이주이론 : 기존이론의 평가와 행위체계론적 접근의 제안. 한국인구학, 23(2), 5-37.
10)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11) 손기영(2010). 여성결혼이민자 인적자본의 특성 및 취· 창업 지원방안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1), 19-36.
12) 신경희(2004).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한국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양인숙·민무숙·김선혜(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 양인숙·김선혜(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경영경제연구, 34(1), 237-266.
15) 이로미(2009). 여성결혼이민자 구직 유형 분석. 장서영 외(2009).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16) 이아진·최연실(2011). 문화적응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부부 갈등과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 한국생활과학학회지, 20(1), 71-90.
17) 장명선·이옥경(2009).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8) 장서영·김이선·이로미·장인자·유지영(2009). 결혼이주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고용정보원.
19) 장인자(2009). 여성결혼이민자 노동 경험 분석. 장서영 외(2009).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20) John W. Creswell(2010).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2010). 질적 연구방법론-다섯 가지 접근-. 서울 : 학지사.
21) 홍성희·김혜연·김성희·윤소영·고선강(2008). 건강가정을 위한 가정자원관리. 서울 : 도서출판 신정.
22) Antecol, H., Cobb-Clark, D. A. & Trejo, S. J(2002). Human Capital and Earnings of Female Immigrants to Australia,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IZA DP, 575, Discussion Paper.
23) Blood. R. O. Jr. & Wolfe, D. M.(1960). Husbands and Wives. New York : Free Press.
24) Borhas, George J.(1995). From South of the Border : The Impact of Immigrations on the U. S. Economy. New York : Basic Books.
25) Bryant, Keith.(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6) Chiswick, Barry R.(1994). The Performence if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Labor Market. in Herbert Giersch(ed.). Economic Aspect of International Migration. Berlin : Springer Verlag, 95-114.
27) Hall, M. & G. Farkas.(2008). Does Human Capital Raise Earning For Immigrants in the

Low-Skill Labor Market?. Demography, 45-3, 619-639.

28) Ho, Christina(2006). Migration as Feminisation? Chinese women's experiences of work and family in Australia. Jou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3-3, 497-514.

29) Nah, K. H.(1993), Perceived problems and service delivery for Korean immigrants. Social Work, 38(3), 289-296.

30) Mancinelli, S., M. Mazzanti, N. Piva & G. Ponti(2010). Education, Reputation or Network? Evidence on Migrant Workers Employability. Journal of Socio-Economics, 39-1, 64-71.

31) Mincer, Jacobs(1993). Human Capital Technology, and the Wage Structure. Studies in Human Capital.

32) Schultz, T.W.(198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 1-17.

33) Sullivan, A. & S. M. Sheffrin(2003). Economics: Principles in action,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07458: Pearson Prentice Hall, 5.

34) Takenoshita, H.(2005). The Determinants of Income among Transnational Migrants in Japan: A Case of Japanese Brazilians. Paper Prepared for the conference o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of research committee 28 of the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held at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on August, 18-21.

■ 투 고 일 : 2013년 10월 1일
■ 심 사 일 : 2013년 10월 8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11월 13일